

지속가능한 미래 세계환경의 날

기후환경이야기

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전 의장



지난 5일, 세계환경의 날이었다.

지난 1972년 6월, 스톡홀름에서 환경을 주제로 ‘유엔인간환경회의’가 개최되었고 ‘환경권 보장’을 규정한 ‘인간환경선언(일명 스톡홀름 선언)’이 채택됐는데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했다.

올해 기념행사는 한국 제주에서 유엔과 우리 정부의 공동 주최로 진행됐다. 6·3 대선이 끝나고 새 정부가 출범한 즈음이라 국제적 이벤트임에도 주요한 뉴스거리가 되지 못했다.

올해 세계환경의 날의 주제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 더 이상 방지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가 반영되었다.

지난 2017년, 2023년에도 이번과 거의 같은 주제였다. 그만큼 중대한 과제라는 뜻이다. 특히 오는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 플라스틱협정’ 체결을 앞둔 중요한 해이다.

지난 2022년 유엔 환경총회가 플라스틱 오염을 인류 공동으로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2024년까지 국제 플라스틱협정을 체결할 것을 합의했었다.

그 후 5차례의 각국 대표가 참여한 ‘범정부 협상위원회(INC)’가 있었다. 그러나 작년 말, 부산에서 개최된 마지막 5차 협상위원회는 협정을 타결하지 못했다. 산유국들과 플라스틱 산업의 강국들이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를 통제하자는 협정의 취지와 내용에 반발하면서 그렇게 됐다. 5차 협상위원회를 연장한 이번 제네바회의에서 과연 협정이 탄생할 것인지 지켜봐야 한다.

플라스틱 오염 이슈는 기후위기, 생물종다양성 위기와 함께 지구촌 환경생태계 3대 위기의 하나이다. 플라스틱 오염이 기후와 종다양성 위기를 더위 악화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기후와 종다양성 위기는 국제사회의 합의로 해법을 구해가고 있으나 지금까지 플라스틱 위기는 대응책이 없다.

플라스틱은 전 세계에서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 흔한 물질이다. 현대사회에서 너무도 편리하다. 그러나 화석연료에 추출한 화학물질이기에 제조 및 이용 과정에서 폐기됐을 때 화학공해를 야기한다.

폐기하더라도 수백 년 썩지 않고 인간과 자연생태계를 쪼먹는다. 미세플라스틱의 공포에 대해 들었을 것이다. 서서히 분해되면서 아주 잘게 쪼개진 미세플라스틱이 우리가 숨 쉬는 공기에, 마시는 물에, 먹는 음식물에서 검출되고 있다. 우리 인체의 장기인 뇌, 혈액, 콩팥, 임산부의 태반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구의 최고봉 에베레스트 산정, 가장 깊은 마리아나 해구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그동안 마구잡이로 쓰고 버렸다는 말이다.

1950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의 연간 생산량이 불과 200만 톤에 불과했다. 그러나 현재 연간 4억 5000만톤, 전문가들에 의하면 매년 사용량이 증가 중이며 대

책이 없다면 2050년이 현 수준에서 2~3배 증가한다. 매년 생산량의 65% 정도가 폐기물로 발생하며 그중 1400만 톤이 바다에 버려지고 있다. 연간 플라스틱 생산량의 약 50%가 일회용 플라스틱 제조에 사용되고 있다. 제조공정에서 지구 전체의 5% 온실가스를 배출에 기여하고 있다.

플라스틱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생산과 소비를 통제하는 구속력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유엔이나 전문가들에 의하면, 2040년까지 현 수준에서 50% 내외의 생산감축이 필요하다.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고위험 화학물질 사용이 억제돼야 한다. 이런 제품은 재활용도 불가능하다. 일회용 플라스틱(Single Use Plastic)도 단계적 금지해야 한다.

재이용과 재활용 촉진이 필요하고 해양 플라스틱 오염 방지책이 강구돼야 한다.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모든 나라와 기업들의 집합적 행동이 필요하다.

오는 8월, 이런 내용의 답은 국제플라스틱 협정이 체결돼야 할 것이다. 국내적으로도 새 정부가 시작된 만큼, 새 정부는 이전 정부의 미온적 자세를 탈피해 플라스틱 오염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법과 제도,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2025년 세계 환경의 날을 보내며, 지구와 자연생태계, 그리고 인간의 조화를 상상해 본다. 모든 이들이 ‘위기’를 초래하는 행위에 중단시키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해 합심하기를 기대해 본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이민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차량이 불타고 있다. AFP/연합뉴스

서석대

초여름에 들어서니 새맑은 하늘 아래 여기저기 접시꽃이 많이 피었다. 출근길에 지나치는 봉산 작은 절집 담벼락에도, 수북학구당 길옆에도 자홍색, 흰색, 붉은색으로 치장한 접시꽃들이 소담하게 피어 고운 자태를 드러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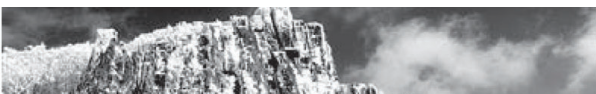
접시꽃은 초기의 사립문 옆에나 장독대, 국민학교 교정, 완행열차가 쉬어가던 간이역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여름꽃이다.

키 크고 잘생긴 외형과 다르게 접시꽃은 여느 꽃들이 가진 황홀하고 진한 향기는 없다. 하지만 누가 보든 말든 철이 되면 늘 그 자리에서 피고 지며 집을 지키고 손님을 맞이한다. 그래서 더욱 소박하고 꾸밈없는 꽃으로 사랑을 받아 왔다.

접시꽃은 옛 문헌에도 실려 있다. 신라의 대문장가 최치원이 당나라에 머물 때 쓴 ‘촉규화(蜀葵花)’라는 시다.

“거절은 발 언덕 쓸쓸한 곳에 탐스런 꽃송이 가지 늘렸네 / 첫 여름 비 겹 무렵 가벼운 향기 보리누를 바람결에 비낀 그림자/ 수레 탄 이 어느 누가 와서 보리오 별 나비만 부질없이 서로 엮보네”

일찍이 당나라에 유학한 최치원은 벼슬길에 올랐으나 변방의 소국 출신 이방인 취급을 받았다. ‘수레에 탄 고관들은 접시꽃(최치원)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고, 부질없는 별, 나비만 관심을 갖는다’며 이국땅에서의 소외와 절망감을 탄식한 것이다. 촉규화는 접시꽃의 한자표기이다. 별고 꼬막의 재미진 맛을 세상에 각인시킨 소설이 조정



래의 ‘태백산맥’이라면, 접시꽃을 우리에게 가장 널리 알린 사람은 단연 시인 도중환이다. 그는 결혼 2년 만에 암으로 세상을 등진 아내에게 바치는 절절한 사부가를 모아 시집 ‘접시꽃 당신’을 펴냈다. 1986년 출간된 이 시집은 당시 15만 부 이상이 팔려나가며 수많은 여심을 흔들어 놓았다.

시 ‘접시꽃 당신’은 구절구절마다 애처롭다. “옥수수잎에 빗방울이 나립니다/ 오늘도 또 하루를 살았습니다/ 낙엽이 지고 찬바람이 부는 때까지/ 우리에게 남아 있는 날들은/ 참으로 짧습니다/ 아침이면 머리맡에 흔적 없이 빠진 머리칼이 쌓이듯/ 생명은 당신의 몸을 우수수 빠져나갑니다/…/옥수수 잎을 때리는 빗소리가 굵어집니다/ 이 어둠이다

하고 새로운 새벽이 오는 순간까지/ 나는 당신의 손을 잡고 당신 곁에 영원히 있겠습니다.”

먼 산에 빠꾸기 울고 밀보리 누룩할 때 피어나는 접시꽃을 생각하다가 그 꽃말이 궁금해 찾아보니 색에 따라 ‘사랑, 평안, 풍요’ 등 다양하다. ‘순수함과 신선함’, 그리고 ‘새로운 시작’도 있다.

지난 6월 3일 ‘장미대선’이 끝나고 정권이 바뀌었다. 새로운 날들의 시작이다. 훈군(昏君)과 융군(庸君)이 설치던 무도한 시절이 지나갔으니, ‘북소리가 바뀌면 춤도 달라져야 한다’는 나이지리아 하우사 부족의 속담처럼 이제 국민들은 바뀐 북소리에 따라 새롭고 신명난 춤을 기대한다.

최도철 미디어국장

社說

선제 대응 필요한 광주시 부채 2조원 시대

미래 세대에 부담 전가 안돼

광주광역시 채무 규모가 2조원을 돌파했다고 한다.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정부의 부채 의미가 일반기업과 같을 수는 없지만 지방의 과다한 부채가 주민의 삶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일이다. 건실한 재정을 위한 광주시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때다.

9일 광주시의회 ‘2024 회계연도 광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본예산 기준 광주시의 지방채 규모는 2조700억원으로 집계됐다. 광주시는 지난 2020년 지방채 1조원을 돌파한 후 5년 만에 2조원 시대를 맞게 됐다. 광주시 인구가 140만여 명인 것을 고려하면 시민 1인당 147만7000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광주시는 2020~2024년 5년간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료만 무려 1195억원을 부담했다고 한다. 여기에 민선 8기 광주시는 출범 2년 10개월 만에 민선 7기 4년간 부담한 이자 총액에 육박하

는 764억원의 이자를 부담했다.

올해 광주시의 부채는 중앙 정부의 지방교부세와 지방채 인수에 사용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이 교부되지 않거나 대폭 줄어든 영향이 크다고 한다. 하지만 과다한 부채가 막대한 이자와 원금 상환의 부담으로 이어져 교육과 복지 등 다른 필수 예산 항목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의료, 사회복지 등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를 불러오고 미래 세대에도 부담을 전가해야 한다. 주요 현안인 도시철도 2호선 총사업비 증가와 시비 부담 등 앞으로 광주시의 부채가 줄어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도 문제다.

지방정부의 빚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리스크다. 광주시는 빚으로 인한 피해가 현실로 다가오기 전에 더 이상의 부채를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과 내부거래를 줄이고, 예산의 우선순위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조정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과도한 부채는 재앙의 씨앗이다.

끊이지 않는 존속살해 ‘참극’ 더 이상 안돼

자녀관 바꾸고 법·제도 강화될

승용차를 몰고 진도 앞바다로 돌진해 처자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가장이 카드 빚과 임금체불 조사에 따른 압박에 못 이겨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인부들에게 3000만원 상당 임금을 주지 못해 지난 2월부터 노동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빚 등 2억원이 넘는 채무에도 시달리다 아내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계획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모든 과정에 수면제를 준비하고 자녀에게 먹이는 단계까지 계획된 범행이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자녀를 살해하는 사건은 이제 낯설지 않다. 경제난, 가족 갈등, 정신질환 등 다양한 배경이 존재하지만, 반복되는 비극 속에는 공통된 사회적 병리가 자리하고 있다. 첫째는 극심한 경제난이다. 소득 양극화와 불안정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안전망은 개인을 점점 더 고립시키고, 벼랑 끝으로 내몬다. 단순한 채무 문제가 아니라, 출구 없는 구조적 불안이 극단적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 둘째는

자녀를 ‘소유물’로 여기는 왜곡된 인식이다. ‘내가 없으면 아이도 살 수 없다’는 비뚤어진 가족주의는 아이를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않고 부모의 연장선으로 취급하게 만든다. 문제는 이러한 인식이 문화로 고착돼 있다는 점이다.

법 제도의 허점도 여전하다. 우리 형법은 부모를 살해한 존속살해에 대해서는 가장 처벌을 명시하면서도, 자식을 살해한 경우에는 별도의 조항 없이 일반 살인죄로 다룬다. 오히려 영아살해의 경우는 최고 징역 10년으로 형량이 더 낮다. 더 늦기 전에 사회 전체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해야 한다. 부모가 자식을 자기 것처럼 여기는 잘못된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동시에 위기에 처한 가정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가족 내부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학대가 더 이상 은폐되지 않도록, 교사·의사·이웃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감시체제도 강화돼야 한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다. 이 단순한 진실을 지키기 위해, 법과 제도, 문화 전반에 걸친 성찰과 변화가 절실하다.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 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